

좋은이웃이 마련한 어울림 한마당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난타공연을 즐기고 있다.

"불교계 情, 타향살이 버팀목"

불자모임 '좋은이웃', 외국인근로자 축제 열어

고국을 떠나 전북 완주 국가공단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과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이 6월 18일 완주군 봉동읍 현대자동차 인화관에서 열렸다.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불자모임인 좋은이웃(대표 정용기)이 주최하고 송광사 · 금선암 · 원경사 · 현대자동차 불자회 · 전북대병원 불자회 등이 후원한 이번 어울림 한마당은 네팔 · 스리랑카 · 미얀마 · 베트남 · 태국 등 동남아시아 13개국 근로자와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동참했다.

현대자동차 사물놀이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제기차기, 투호, 단체 줄넘기 등의 게임과 장기자랑, 공연, 경품추첨 등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들에게는 기념 티셔츠, 음료와 다과, 경품이 주어졌고 전주 천천클럽과 로터리클럽에서는 집에서 입지 않는 겨울옷 1,000여점을 제공했다. 또한 익산 원경사 자비 스님은 근로자들 손에 일일이 합장주를 채워줬으며 전주 한사랑 봉사단에서는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정용기 대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고국에 대한 향수로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 이들이 건강하게 근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열심히 근무해 건강한 모습으로 고국에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네팔출신의 랄마니(32) 씨는 "한국생활 6년 동안 (행사에) 매년 참가했다"며 "고국의 동료들도 만나고 고향 이야기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선족 출신의 한 근로자는 "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며 "한국사회의 일원이기도 한 외국인근로자들을 잘 대해주면 고맙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취산 설법현장, 음악으로 재현

부안 내소사, 선악회 초청 영산회상 음악회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가 30년 전통의 선악회를 초청해 영산회상 음악회를 개최했다.

내소사는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천상에서 선녀들이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한 것으로 전해지는 영산회상 음악회를 6월 18일 회승당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사진〉



템플스테이 참가자와 관광객 등 100여명이 관람한 이날 음악회는 중요무형문화재 대금정악 예능보유자 조창훈 선생의 지도 아래 해금 정은향, 단소 최차환, 대금 조석호, 피리 양정환, 가야금 김인선, 거문고 윤선숙 선생 등이 훌륭한 연주를 선보여 관객을 매료시켰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전통 악기로 구성된 현악영산회상을 아무 음향기기 없이 들은 것은 처음이다. 내로라하는 대가들로 구성된 선악회의 영산회상곡을 직접 들을 수 있어 공연 내내 정말 행복했다"며 "앞으로 선악회를 초청해 좋은 시간을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악 영산회상을 연주한 선악회는 1985년 결성돼 전통음악 중 정악인 '영산회상'과 '가곡' 등 줄풍류의 음악을 연주하는 단체다. 대한제국 궁정악사 출신 원로들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출발해 꾸준히 영산회상을 연주해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4.16 희망의 씨앗, 호남 곳곳에

4.16순례단, 전북서 11일간 순례 · 대담 등



군산 새만금 방조제 신시도 구간을 걷는 4.16 희망순례단.

지난 5월 15일 인천 연안부두를 출발, 진도 팽목항을 향해 떠난 '4.16희망순례단'이 인천~경기~충남 바닷길 450여㎞를 걸어 전북까지 내려왔다. 순례단은 6월 13~23일 금강 하굿둑을 시작으로 전북순례 일정을 소화했다.

총 순례 거리인 800㎞의 절반을 넘어 군산 은적사에서 첫날밤을 보낸 순례단은 군산 새만금 방조제~김제~부안~정읍~고창을 거쳐 11일간 전북순례를 마치고 23일 전남 영광을 지나 팽목항을 향해 걸었다.

16일 부안 새만금방조제를 출발한 부안 마실길 1코스 순례길에는 실상사 신도회와 일감 스님, 정념 스님 등 스님들이 함께 걸으며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가 이뤄지길 기원했다. 순례 중에는 세월호 304인 이팝나무동산이 있는 정읍 황토현전적지를 방문하는 등 순례길 곳곳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22일에는 부안 변산공동체에서 '세월호와 희망교육'을 주제로 한 공개대담을 비롯해 전북작가회의와 함께하는 작은 문화제가 열렸다.

대담은 30여년을 교사로 재직해온 박두규 시인이 사회를 맡았다. 또 생명평화의 사회화 · 생활화를 위한 생명평화운동을 펼치는 도법 스님, 일찍이 희망교육을 역설해온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변산공동체와 보리출판사를 통해 교육운동을 펼치는 농부철학자 윤구병 선생, 순례단에 함께 하고 있는 청소년 등이 교육과 우리 사회의 희망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한편 순례단은 오는 7월 6일 진도 기억의 숲에서 4.16㎞를 걸어 최종 목적지인 팽목항에 도착한 후 회향식을 갖고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생명평화결사, 세월호지리산천일기도, 지리산종교연대, 한국작가회의,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붓다로 살자, 예수살기 등 종교시민사회단체 300여명이 함께 동참한 '4.16희망순례단'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의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일조하고자 순례를 시작했다. 이들이 걷는 길이 '성찰과 기도의 길' '한국의 산티아고 길'로 이어지길 바라는 염원을 안고, 안전한 생명평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촛불을 들고 희망의 새싹을 피우자는 의미로 인천 연안부두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809.16㎞ 22개 지자체를 걷는다. 특히 순례길에 만나는 사람들은 물론 지나가는 마을과도 교류하며 화합의 씨앗을 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포교 산실' 꿈꾸는 자비신행회

6월 16일 나눔센터 개관 무료식당 · 문화교육 제공



6월 16일 열린 자비신행회 나눔센터 개관식.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끈다.

호남의 대표적인 재가불교단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가 6월 16일 새로운 나눔센터를 개관하고 지역포교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올해로 창립 18주년을 맞은 자비신행회는 광주 장동에 기존 건물을 헐고 지상 2층, 400평 규모의 나눔센터를 신축했다. 나눔센터는 1층에 130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무료식당과 빛고을사찰음식체험관, 카페 등이 있으며, 2층에는 다도교육실과 다문화사랑방, 한꽃시민선방, 다목적실이 들어섰다.

개관식에는 진화 스님(송광사 주지),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이화영 이사장 등 불교계 인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박주선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 2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참여해 개관을 축하했다.

이화영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자비신행회와 함께 지혜와 나눔의 길을 함께 걸어준 고마운 자원봉사자들과 회원들이 흘린 땀과 따뜻한 정이 쌓여 만든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진화 스님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자비신행회가 걸어갈 지혜와 나눔의 길에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고, 그 성장이 모든 이웃들과 불자들에게 널리 전해지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자비정신의 향기가 나눔센터를 통해 광주에 그윽하게 퍼지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총 400여 평으로 확장한 나눔센터는 지역포교 및 다양한 복지, 신행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지역포교 산실로 한 걸음 더 도약할 계획이다. 1층 빛고을사찰음식체험관에서는 청년식당, 어린이식당, 어르신식당 등 무료 식당 운영과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교육이 이뤄진다. 또한 한꽃차문화아카데미에서는 다도(茶道)에 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한꽃선방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참선 · 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시민과의 공감대 공직자 노력으로부터"

법선 스님, 공무원 대상 강연

"공직자들이 공적인 의식을 갖고 시민의 권익과 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힘써 달라."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은 6월 15일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17회 '시민의 목소리 청해 듣는 날'에 참석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과 평화운동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법선 스님은 "우리 모두는 타인의 은혜로서 존재하지만 타인을 이롭게 한 적은 별로 없다. 시민의 권익을 지키려면 자기의 권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하고 그 결과로 타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는 공적인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사색이 사라지면서 정신적으로 황폐화되고 있다. 광주가 인권도시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인권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선 스님은 또 "권력은 언어에서 나오기 때문에 통치자의 언어가 아닌 시민의 언어로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혀 달라"는 당부로 이야기를 마쳤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대부속 금산中 금산사서 인성교육

1박2일 템플스테이, 고민상담도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교장 조영석)가 금산사에서 인성교육 캠프를 겸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금산사 템플스테이 수련원에서 열린 이번 금산중 인성교육 캠프는 6월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학생 35명과 교사 10명이 동참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찰예절, 스토리텔링을 통한 금산사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공부하고 나눔과 배려를 통한 타인과의 관계설정을 정립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또한 주지 성우 스님과의 대화 시간에는 스님으로부터 청소년기의 진로와 인생의 미래에 대한 법문과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사례중심의 상담활동을 했다.

이외에 불교의 대표적인 '효' 주제 경전인 〈부모은중경〉을 통해 효를 바로 보게 하고, 자신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시켜 자살 및 범죄예방에 대비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억불사
- 주 지 : 진광(김효성)
- 주 소 : 경남 창원시 북면 월백리 290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易理作名法
(역리작명법)
(당신도 작명대가가 될 수 있다)



이름을 한번 잘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일반인들은 작명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함부로 작명하고 개명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옛말에 자식을 낳으면 먼저 그 이름 바르게 지어주어야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타고난 사주에 맞추어 지어야 한다. 본서에는 이름에 쓰면 절대로 안 되는 불용문자(不用文字)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작명과 개명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이 선정한 인명용한자(人名用漢字) 8,142자 전부를 수록하였다.

易理作名法 (503쪽) 著者 : 孫中山 會長 (전, 대구미래대학 강사)
서점판매가 : 40,000원 (스님 판매특가 : 34,000원)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30-002326-01-014 (예금주 : 손상용)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10-9391-5699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